

마태복음 1:18-25 – 예수님의 탄생

1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20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누가복음 1 장 39-56 절을 보면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3 개월 가량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본문이 적힌 시점은 임신 후 4 개월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보통 3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는 가족들이, 주로 부모들이 자녀의 약혼자를 찾는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정식으로 약혼의 절차를 밟는 단계, 세번째는 실제 결혼식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에 들면, 남편과 아내로 불릴 수 있는 단계이지만 아내가 친정을 떠나 남편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2 장 24 절에서는 약혼한 여자를 ‘아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위의 19 절에서 요셉을 남편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의 효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혼은 법적인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려면 정식으로 파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약혼 기간 중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 되어 있기에 임신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혼외 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된 여자는 신명기 22:23-24 말씀을 따르면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기에 요셉은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천사는 성경 여러군데에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1-20, 26-38 절처럼, 가브리엘 천사로 나오는데, 20 절에 나오는 주님의 천사도 가브리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약에서는 성령 (Holy Spirit) 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 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로 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사야서 40:2, 53:6 절에서처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 23 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 장 14 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 12 회 정도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미 오래전에 전해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사명의 말씀 (마태 28:20),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말씀입니다.

24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 24 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2 단계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결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 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마태 복음에서는 요셉이 순종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결혼후에도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하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기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도 순종을 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 이후에는 잠자리를 같이하고 다른 자녀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55-56 절을 보면 4 명의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